

##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연구

### Study For the Elderly, Children, and Women

박혜선 /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by Park, Hae-sun

#### 복합화 · 복합시설

호황기에는 업종 세분화가 강하게 진행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점포들의 복합화가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최근 창업시장에서는 메인 상품과 관련 상품을 함께 구비해 고객을 모으는 '복합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던데, 아마 고객들은 한 곳에서 필요한 상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한편, 정부 주도로 시행되어왔던 학교시설사업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바뀌어가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말이 부쩍 많이 들린다. 학교시설 복합화란 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노인 복지시설 등 주민생활에게 필요한 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적, 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의 부지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도시 재개발에서는 더욱더 복합이라는 용어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주상복합, 업무복합, 스포츠·오락복합, 복합환승센터 등. 덕분에 우리는 영화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운동하는 것을 햇빛 한번 안 보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원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나 복합시설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이 적절히 맞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다.

#### 노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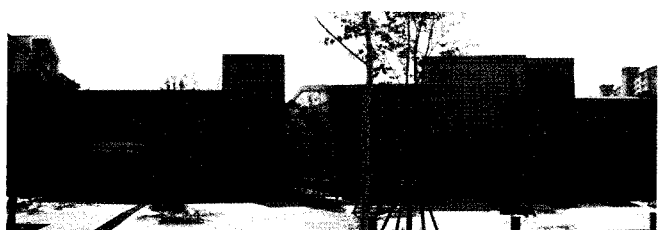
2002년 현재의 대학으로 부임하면서 뒤늦게 박사과정을 진학하였고, 그 이수과정을 통해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우리도 머잖아 인구의 오분의 일이 노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거나 시설도 가장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에 맞추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노인시설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실재는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더욱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내용은 차치하고)이 무수히 마련되어 있고,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으나 나이를 먹어가며 노인들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케어를 담당할 시설이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 병약해진 노인은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선택의 여지없이 곧바로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야한다. 물론 그때까지 가족이 받는 고통이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러한 생각이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aging in place'란 개념이고, 최근에는 노인을 따로 격리해서 시설에 모시는 요양시설보다는 집에서 머물면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형태로 점차 노인케어의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를 이해하게 되었다. 복지 선진국에서도 재정 부담이 큰 시설보호나 의료적 서비스의 경우는 최소한의 수요를 만족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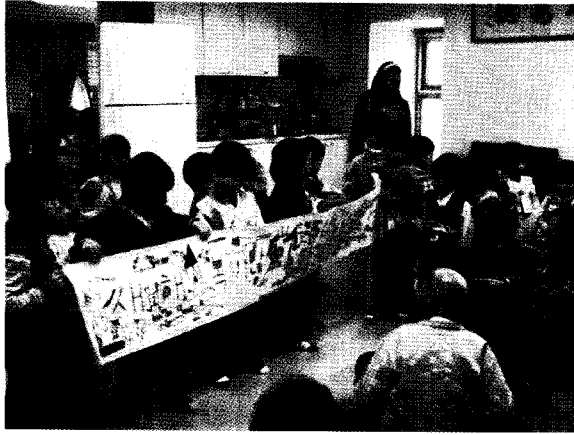
노인들을 위한 재가시설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 그 중심엔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최근의 시설들은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른 복지시설이나 일반시설들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심에서는 지가상승과 부지 부족 등으로 기존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시설을 복합화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복수의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축 혹은 재건축하면서 복지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이것은 시설의 건립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행정적인 요구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모두에도 언급했듯이 이용자는 여러 가지 목적의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물론 영화만 보러 온 사람이 쇼핑객들과의 불필요한 동선교차에 짜증이 나듯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번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의 집약화로 인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충실해 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노인복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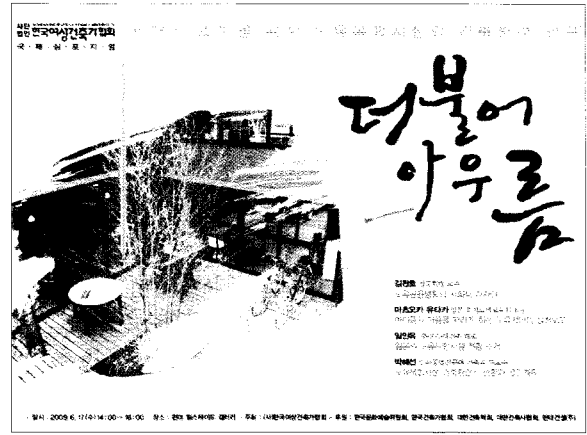
서론이 길어졌으나, 이러한 경우로 필자는 노인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노인복합시설에 주목하게 되었다. 노인복합시설은 '복합'이라는 용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노인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노인복합시설'이다. 노인복합시설로 박사논문을 쓰게 되면서, 복지시



(그림 1) 부리와 새씩 커뮤니티 센터 전경(왼쪽이 노인여가시설, 오른쪽이 어린이집)



〈그림 2〉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세대간 교류 모습



〈그림 3〉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노유복합시설 국제심포지엄



〈그림 4〉 후치노베 보육원의 원아들



〈그림 5〉 유유 데이터서비스센터 데이터룸에서의 세대간 교류의 모습

설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국내 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사하게 되었다. 사실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급자의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여러 복지시설들이 함께 지어졌으나 진정한 의미의 '복합'이라고 하기 어렵다.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상가건물에 많은 점포들이 입주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위한 시설들이 있는데 대상지는 노인과 유아, 아동, 주부가 주류이다. 청소년과 장애인도 해당이 되나 소수이고 많은 시설들이 어린이집과 노인주간보호센터나 경로당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인지라 자연스럽게 노인과 유아시설의 복합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유로복합(幼老複合) 시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유로복합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간 교류'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으며, 유로복합의 중심 테마인 세대간 교류가 현대사회 가족 내 문제에 대한 치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생이란 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대간교류협회(Intergenerational Unity Association)'란 기관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대간 교류

2007년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가구당 가족수도 매년

감소되어 미혼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노인 가구 등이 점차 늘고 있다. 조부모와 한 가구에서 사는 대가족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끔씩만 만나는 요즈음 아이들은 노인들과 도대체 어떻게 접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집 안에 조부모도 형제도 없는 아이들을 가진 가정이 일반화 되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러한 부모의 육아 불안의 증대는 또다시 출산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카리 코이치(碓 浩一)가 주장한 '노유공생'이란 개념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는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의 핵으로 하여 영유아기로부터 아이와 노인이 생활의 장을 공유하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도시화, 산업화가 가져온 핵가족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대가족 사회에서의 장점을 현재의 사회적인 시스템 내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조부모와 접할 기회가 적어진 요즈음의 아이들은 이전과 같이 조부모 기능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었던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체험을 지역사회 노인과의 교류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노인과의 교류는 실제 조부모와 접하는 것에 가까운 경험이 가능하여 정신적인 평안을 주는 장으로서, 또한 문화가 전해지는 장, 사회활동의 미니체험이 가능한 장이 될 수 있다. 세대간 교류에 의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 폭 넓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풍부한 정서를 키울 수 있다. 물론

노인들에게도 아이들과의 교류는 삶의 활력이 되고 생의 보람이 된다.

## 노유복합시설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필자의 제안을 통해 지난해 여성건축가협회 노인복지분과는 노유복합시설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다. 그 후 보육분과와 합동으로 2009년 2월 일본의 유로복합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지난 6월 '노유복합시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에서도 노유복합에 대한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선진사례라고 한다. 하지만 미리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을 조사하여 방문하였으므로 견학지의 대부분은 세대간 교류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특히 사가미하라시의 후치노베 보육원과 유유 데이터서비스센터의 사례가 흥미로워 그 곳의 부원장이 심포지엄에 초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유복합시설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특히 고민에 빠졌던 것은 일본의 사례가 중심이 되고, 국내에는 소개할 만한 노유복합시설의 사례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던 중 발표자 중 한 분이었던 김찬호 교수의 소개로 대전에 있는 '뿌리와 새싹'이라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함께 지어진 곳을 알게 되었다. 대덕테크노밸리의 한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뿌리와 새싹은 2008년 10월 개원된 곳이었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과 뿌리 문화원이란 명칭의 노인여가시설이 함께 만들어진 곳이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주)대덕테크노밸리가 대덕테크노밸리 신도시를 분양한 후 기업의 사회적 기여의 한 방법으로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면서 건강한 지역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지역주민의 자녀와 입주사업체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인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위주의 노인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설은 (주)대덕테크노밸리가 관평동에 대지 약 200평, 건평 약 217평의 2층 건물을 시공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운영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자리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가족이 어울리는 생활공동체, 세대 간의 소통공동체, 이웃 간의 마을공동체로 지역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커뮤니티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 방문해 보니 부부이신 원장님과 사무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보육과 세대간 교류에 힘쓰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법적 제약으로 두 시설이 복합되거나 연결되지 못하고 별도로 지어졌다는 점. 그리고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 세대간 교류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노유복합시설은 인생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를 사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면에서 각별히 취급되어야 한다. 물론 이 시설의 이용자를 케어하는 주체가 여

성 혹은 주부라는 면에서 더욱 관심이 간다. 노인과 아이들의 교류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내가 키워야 할 아이들의 사회적 교육을 담당하고, 내가 부양해야 할 부모들의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주제라서 연구하는 보람을 느끼나 부담 또한 적지 않다.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일본 노유복합시설을 방문·조사를 하면서 노유복합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잘 계획된 시설에서는 오히려 교류가 없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 연결통로도 변변치 않은 시설에서 원활한 세대간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드웨어로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가의 의도와 실현여부에 대해 회의가 드는 부분이었다.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해하여 계획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없이는 건물은 단순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즉 어떠한 좋은 시설도 그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의도된 공간으로의 쓰임새가 무의미해진다. 공간의 유무나 설비여부 보다는 시설 운영자의 가치관, 의지, 노력, 기획력 등에 따라 세대간 교류에 큰 차이를 가졌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지를 갖고 구현하려는 곳에서 하드웨어는 훌륭한 소프트웨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 하드웨어가 봉사해야 한다고 연구의 마무리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다른 건축에 있어서도 아마 공통된 과제일 것이다. 건축가는 그릇 뿐 아니라 담아내는 콘텐츠의 구성과 실현에도 힘써야 함을 깨달았다.

## 노인복지연구의 향후 추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인프라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전후 노인복지시설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금후도 그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노인시설의 확대, 보육시설의 축소 및 전환이 중심을 이룰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간 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인에 대한 문제는 사회·심리적인 연구, 복지서비스,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직접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이 요구된다.

연구자, 혹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또한 노인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저출산·고령화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아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족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가 연구 주제가 되고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낀다. ■